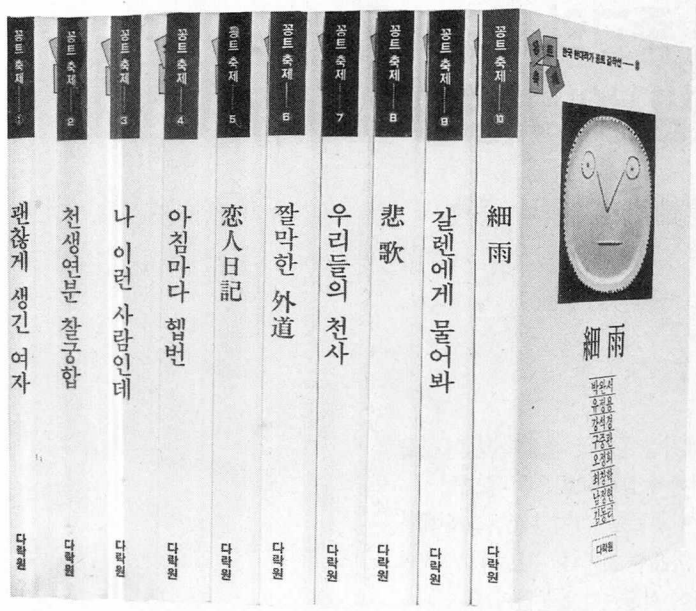
꽁트문학의 '독립선언'

160여 작가 700여 작품 수록한 최초의 전집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

다락원 간



우리나라 꽁트문학의 전모를 조감해 볼 수 있는 꽁트전집이 발간됐다.

도서출판 多樂園은 최근 '꽁트축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 전20권 중 1차분 10권을 펴냈다. 수록작가는 각권 8명씩 모두 80명으로 黃順元, 金東里 등 원로작가와 李文求, 崔一男, 朴婉緖 등 중견 인기작가, 그리고 高元政, 朴石秀, 金香淑 등 신진작가들의 작품 350여편이 수록됐다.

한국문학사상 꽁트전집으로는 처음이 되는 이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에 대해 다락원의 鄭孝燮사장은, 우리 꽁트문학의 대체적인 윤곽과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차적 중간결산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말한다.

"꽁트도 문학의 어엿한 한 장르입니다. 발표된 양만 보더라도 일반소설에 못지 않게 많죠. 한 3개월 동안 이번 전집을 위해 작업하면서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현대작가 중 꽁트를 쓰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읍니다. 이른바 '雜文'을 쓰지 않은 작가는 있었지만, 꽁트는 대부분이 다 쓴 걸로 나타났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꽁트문학의 정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저간의 사정. 일부 작가의 개인꽁트집, 혹은 여러 작가들의 꽁트를 단행본으로 함께 묶은 합동앤솔로지가 산발적으로 나온 경우들이 고작이었다. 70년대 이후 각종 사보나 협회지, 포켓판 잡지 등에서 꽁트를 위한 지면을 폭넓게 제공하면서 꽁트의 수요와 공급이 급증한 데 비해,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비교적 소홀히돼온 편이었다. 이는 꽁트가 그동안 소설의 주변장르로 치부된 데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꽁트문학의 부피는 어느 모로든 단순한 소설의 주변장르로 머무를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정효섭사장의 설명이다.

작가 스스로 직접 뽑은 자신의 걸작들만 모아 우리 문학사상 초유의 꽁트전집으로 정리한 이 '꽁트걸작선'은 70년대 이후 급속한 대중적 확산을 보여온 꽁트문학의 진면목을 두루 개괄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그런 점에서 꽁트문학의 '독립선언'이라 할 이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은 소설가들의 餘技쯤으로 여겨지던 꽁트에 대한 독자들의 집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만하다. 최근의 우리 소설이 전반적으로 중·장편화함으로써 진지한 읽을거리로의 지향을 보이고 있는 한편으로, 그 역방향에서 진행되는 꽁트문학의 대중적 확산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은 한눈에 가늠하도록 해준다. 무엇보다도 수록작가의 광범위함이 그 단적인 증거. 출판사측의 계획대로 올 5월 2차분 10권까지 마저 간행되면 모두 160명에 이르는 작가들의 700여 작품이 수록되게 된다. 수록 작가나 작품의 수로만 따진다면, 웬만한 문학전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작가들의 自選꽁트를 모았다는 것도 이 전집의 특징이라고 할 만하다. 한권당 8명의 작가가 각각 스스로 뽑은 4~5편씩의 꽁트를 모았다. 작품에 대한 작가자신의 평가와 독자의 반응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들의 자선꽁트라는 점에서 수록작품 선정의 임의성으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집의 발간 작업에 참여한 소설가 具仲琯씨는 "수록된 작품들은 작가자신이 가장 재미있다고 뽑아 준 자신의 걸작 꽁트들이기 때문에 젊은층 독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을 것 같다"고 자신한다.

소설가 金東里씨가 발간에 붙인 말에서 지적한 것처럼 꽁트는 "오늘날과 같이 늘 바쁘고 자주 나다녀야 하는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부담없이'라는 조건에 가장 제격"인 문학의 양식이다.

그런 점에서 꽁트는 일종의 '휴대용 문학'이요, 꽁트집 역시 휴대하기에 편하도록 꾸며져야 한다.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도 비교적 휴대에 간편한 판형인데, 정효섭사장의 말을 따르면 '종이의 손실을 무릅쓰고' 4×6판보다는 작은 문고본으로 제작했다고 한다. 따라서, 원고지 20매 안팎의 분량에서 寸鐵殺人의 극적인 반전을 보이는 꽁트문학의 참맛을 두루 개괄하는 데 이 전집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정효섭사장은 자부하고 있다.

나아가 좀더 치밀한 독자라면, 꽁트작품들에 드러난, 그 문학적 색채를 달리하는 작가정신의 경쾌한 行步를 통해 해당작가의 문학세계 전체의 윤곽을 어림하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꽁트의 小品性이 갖는 특유의 '옅은 맛'이 보다 나은 차원의 독서로 이행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쨌든 이 「한국현대작가꽁트걸작선」은 우리 문학사상 초유의 꽁트전집이라는 점, 거의 모든 현대작가를 총망라한 수록작가의 광범위성, 작가의 自選에 맡긴 수록작품의 엄선주의, 그리고 장르적 속성에 걸맞는 휴대용 판형으로의 제작이라는 점 등에서 의의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다락원/B6변형/각권 240면 내외/각권 1800원

—강철주 기자

컴퓨터 도서 개척자 — 도서출판 기전연구사

지금 서점에 가십시요.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켜 줄 컴퓨터 양서가 기다리고 있읍니다.

書圖出版 機電研究社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新設洞 104-29
전화 : 235-0791, 253-7744

IBM PC — 김철중 편역 — 값 6,000원
IBM PC 하드웨어 — 주정규 역 — 값 6,800원
MS-DOS와 BASIC — 신동준 편저 — 값 5,000원
표준 MS-DOS 핸드북 — 주정규 역 — 값 7,000원
LOTUS 1-2-3 — 신동준 역 — 값 6,000원
PC TOOLS & COPY II PC — 송회선 편저 — 값 3,500원
IBM PC 어셈블리 — 신동준 편저 — 값 6,000원
BASIC 프로그래밍 500제 — 신동준 저 — 값 6,000원

한글 DOS와 BASIC — 신동준 편저 — 값 5,000원
알기쉬운 5550 Multi plan — 신동준 저 — 값 6,000원
실용 BASIC프로그램집 — 김철중 역 — 값 3,000원
BASIC 트레이닝북 — 전재승 역 — 값 4,000원
FORTRAN 언어 — 이근철·주정규 공저 — 값 4,500원
DATA BASE TOOL BOX — 송회선 편저 — 값 3,500원
TURBO EDITOR TOOLBOX — 송회선 편저 — 값 6,000원
dBASE III — 신동준 저 — 값 5,500원

dBASE III PLUS — 신동준 저 — 값 6,500원
Labpac — 조낙훈 역 — 근간
MC 68000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 이병태 역 — 값 6,000원
dBASE (reference manual) — 이병태 편저 — 값 3,500원
dBASE (operation manual) — 이병태 편저 — 값 3,000원
101APPLE컴퓨터 프로그래밍 — 김철중 역 — 값 2,500원
기초 애플로고 — 이병태 편역 — 값 2,500원
APPLE 입문 — 이병태·임병민·한수찬 공저 — 값 3,500원

APPLE 렛슨 BASIC(시리즈 1) — 김봉택·송신자 저 — 값 3,500원
APPLE 렛슨 BASIC(시리즈 2) — 김봉택·송신자 저 — 값 3,000원
APPLE 렛슨 BASIC(시리즈 3) — 김봉택·송신자 저 — 값 3,500원
APPLE 렛슨 -DOS (시리즈 4) — 김봉택·송신자 저 — 값 2,500원
APPLE II 회로해설 — 전재승 편역 — 값 4,500원
THE DOS MANUAL — 이병태·김태영 공역 — 값 3,000원
Multi plan 북 — 이병태·전재승 공역 — 값 6,000원
컴퓨터 그래픽스 입문 — 이병태 역 — 값 4,000원